

시론



오창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가상현실(VR) 시대를 맞이하며

이라는 단어가 대중적인 용어로 쓰여지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지만, 이미 인류는 오래전부터 가상세계를 꿈꾸고 오감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왔다.

VR,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

이렇게 가상현실 콘텐츠와 하드웨어 열풍은 스포츠, 의료, 교육, 국방, 제조업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산업의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현실이 자칫 기업의 투자유치와 실적 부풀리기용으로 악용되어선 안될 것이다. 일부 업체에선 정부 R&D과제를 수주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단기 성과중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그치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상현실 산업의 최근 동향과 업계에도 이는 이야기해 이쯤으로 하고 우리지역으로 눈을 돌려보고자 한다.

가상현실을 지역의 주력산업과 융합하거나 관련기업을 발굴해서 집중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0월 나주혁신도시에서는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었다. 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전남도, 나주시가 지원하고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 수행중인 실감미디어산업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센터 완공에 따라 실감미디어 테스트베

드, 인력양성, 품질평가, 기업지원 등을 위한 장비와 지원시설이 마련되었으며, 지역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토대가 본격 마련되었다.

전남실감미디어센터 응원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의 의지로 마련된 실감미디어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지역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물론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아닌 우선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지만, 우리지역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



나경록

여수경찰서 정보계장

안전한 명품 관광 도시 '여수' 찾기

여수는 2009년부터 관광객유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뒤 2014년 해상케이블카 운행을 시작으로 작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여수를 찾았고 올해 각종 사회적 약재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는 '2016 트래블아이 어워즈'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관광포감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고 '2016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과 관광정보부분 한국관광의별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최고 명품 관광도시로 인정받았다.

또 '2016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

았다. 이러한 성과는 교통안전분야 노력의 결과로 여수경찰서의 교통시행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홍보, 지도단속을 통한 사망률 작년대비 50%감소 등에 큰 몫을 부여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교통문화지수에서도 인구 30만 미만 50개 도시 중 지난해 40위에서 올해 24위로 16단계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국민중심 지역경찰활동 평가에서 여수경찰서는 전남 21개 경찰서중에서 1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사극집회, 전국화물연대총과업 등 크고 작은 집회개최가 238건으로 작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을 예도 불구하고 불법집회시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경찰서의 이러한 노력과 향상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 체감안전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여수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의 메카로 자리를 잡아가고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을 돌파한 사실은 여수의 한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여수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보는 어떨까.

앞으로 여수경찰은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방을 개설하는 등 시민들의 불만, 불친절, 불안전등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사설

부진 가속 '광양항' 방관만할 셈인가

부산항과 함께 국내 2대항만으로 꼽히는 광양항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이 갈수록 줄어 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양항은 인건형에도 뒤져 2위 자리를 내준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터라 3위항만 고착화 격조마저 앞섰다.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전국 항의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현황을 보면 광양항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광양항은 올 1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188만TEU를 처리했다. 이는 부산항 1.618만TEU, 인천항 216만TEU에 이어 3위의 기록이다. 인천항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걱정이다.

특히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매년 감소 추세라는 점이 우려된다. 광양항 물동량은 지난해 10월 18만8천TEU를 기록한 이후 올 8월 18만TEU, 9~10월 17만TEU에 그쳤다. 처리 물

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부산항과 함께 글로벌 종합 2대 항만으로 활약이 기대됐지만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는 비컨테이너 화물 등 환적 물동량을 확대해 2위 자리를 굳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말까지 광양항 최대 현안인 360억원대 규모의 24일 컨테이너 크레인 3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컨테이너 물동량도 감소 추세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전국 3대 항만중 유일하게 줄어드는 실적을 보인 탓이다.

광양항은 정부의 푸-포트 시스템의 한 축이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지 부족과 이로인한 배후항만 조성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2위항만 자리마저 위태 위태한 상황이다. 따라서 항만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적 항만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야 마땅한 일이다.

때늦은 조기 방학 독감대처 옳았나

인플루엔자(독감)가 기승을 부리면 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교에서도 수천명의 학생들이 독감 확진판정을 받아 '등교 중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독감이 확산된 후 늦장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독감 확산이 교육·보건당국이 신속히 조기방학 등의 결정을 못 내린 탓이 크다고 주장한다. 소극적인 태도가 독감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가 이번 주 방학을 앞두고 있어 조기방학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독감확산을 부추겼다 해도 할말이 없게 됐다.

한때 광주시 관내 독감 학생 환자수는 229개 초·중·고교에 3,113명에 이른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28일~12월 12일까지 3주 동안 91개교에 267명이 독감에 걸린 바 있다. 한 달 사이에

약 3천여명의 독감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학교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자 광주·전남에서만 수천명이 등교중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에선 3천여명의 독감환자가 이미 중지됐다. 전남에서도 지난 23일까지 4,079명에 대해 등교중지 조치를 내렸다. 그렇지만, 학교장에서 이미 독감이 유행하고 난 뒤 늦장조치를 취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초·중·고교 학령기는 집단생활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사 일정을 조정, 조기방학 등 필요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지금이라도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게 하는 등 개인 예방수칙을 집중 교육시켜야 할 일이다.

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14(일간)
사장·발행·편집인: 최영기, 사무이사: 권정경, 사장: 이희철, 논설실장: 정정호
대표전화: (062)720-1000, 구독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기사제보: (062)720-1050-56, 사제2부: (062)720-1043-44, 인쇄처: 다원인쇄
FAX: (062)720-1080-82, 문제부: (062)720-1045, E-mail: jndn@chol.com
논설실: (062)720-1032, 전신팀: (062)720-1033, 사신팀: (062)720-1040, 경제부: (062)720-1065-67, 광고국: (062)720-1017, 사회부: (062)720-1050-5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계동로 322(충효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기자수첩

광주시 '촛불행정'?

아마 대한민국에서 '촛불'의 유래는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허순이·미선이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처음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억된다.

이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협상 반대 촛불 집회·2010년 4대강 반대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국민이 들고 일어난 역사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결국 '촛불'은 자유롭게 토론했고 시민들의 열망을 표현하는 산물로 이어졌다. 이번 촛불 민심도 대단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어린 애들로 부터 초·중·고등학생, 광선이 넓은 어르신들까지 참여했지만 누구 하나 주도하지 않고 자발적이었다. 각자 저마다의 생각을 표출하는 축제의 장으로 경의로운 폭력을 스스로 막았고 주운 남자에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는 대동함마방이었다.

윤창현 시장도 최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윤 시장은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촛불행정'을 지시했다.

그는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다져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진다"며 공직자들에 "주 2회 정도 각계각층, 각분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 듣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들의 '민심의 쓴소리'를 시장에



조기철 정치부 차장

적극 반영하겠다는 윤 시장의 의지다.

앞으로 시는 봉사활동가, 양계농장 운영 시민, 장애인 부모 등 각계각층의 시민을 초청해 주 1회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민심 경청이 너무 즉흥적이고 보여주기식 이뤄졌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시장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외부 인사 강연회로 전략할 우려가 있는 이 제도가 얼마나 효용을 얻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윤 시장의 일방통행으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도 생소한 업무로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조정 인사 선정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윤 시장이 조직을 강력한 리더쉽과 카리스마로 장악한 것도 아니다.

내부 조직의 말바닥 민심을 알지 못하면서 시장의 변화는 결코 잇을 수 없다는 예기다.

윤 시장은 먼저 직원들이 어떤 시장은 원하는지부터 귀 기울여야 한다.

내부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서 믿음과 신뢰 쌓일때 광주시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독자광장

범죄 악용 '대포폰' 근절해야

일명 '대포폰'이 범죄 행위에 악용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대포폰은 납치, 성매매알선, 보이소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면서 '범죄의 필수품'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이소피싱, 도청 등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명의자 대부분은 인적사항 파악이나 증거 확보에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등이다.

이를 합법적으로 개설한 뒤 통화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선불폰'의 경우 실 사용자 1~2개월가량 대포폰을 범행에 이용 한 뒤 증거를 감추며 개설 명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돼 범인을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범행을 범행에 대 출서류로 필요하며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요구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개설시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규제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 등을 제공받고 명의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하는 만큼 합법로 명의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이재복

연말 회식자리 성희롱 조심

연말연시, 회식의 계절이 다가왔다. 그동안 고생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서로를 독려하는 자리이지만 간혹 직장 내에서 성희롱 금지하는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여직원들이 성희롱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고 곳이 회식자리인걸로 밝혀졌다.

회식자리 성희롱으로, 우선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가슴 등의 신체에 시선이 고정되는 시선성희롱, 안마 등을 받자한 에무를 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런 성희롱에 대비해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그 조직의 근절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갈급한 회식분위기 조성과 풀이 있는 직장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성희롱도 성별 차이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역시 사자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기 전에 내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순천경찰서 송광파출소 진현석

진남매일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독자의 신문입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의 제작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사건·사고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공된 정보나 제보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취재를 통해 기사화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글과 사진·시 등도 신문제작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원·생활정보전화 ☎720-1050 •팩스: (062) 720-1080~82 •이메일: jndn@chol.com

유머@세상
뜬금없이 욕을 먹은 가이드가 화장실을 찾아가 보니 그 곳 화장실에는 Man과 Women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효도관광 중생인일
시골 노인들이 미국으로 효도 관광을 갔다. 관광 도중에 화장실에 들리게 되었는데 화장실에 Gentleman과 Ladies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본 가이드가 영어를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글씨가 긴 것이 남자화장실이고 글씨가 짧은 것이 여자화장실입니다"라고 설명을 한 후 별말없이 용변을 보았다. 그리고 다음 관광지로 즐겁게 향했다. 다음 관광지에서 화장실에 갔던 노인들이 잔뜩 화가나서 가이드에게 "이것 보시오! 안내당반 글씨가 긴 것이 남자화장실이라고 하지 않았소?"하며 항의를 하며 핀잔을 주었다.
■연말에 술 취한 남자들 이야기
술취한 남자 3명이 택시를 잡았다. 택시 기사: 그들이 취한 것을 알고, 시동을 걸었다가 끄고는 이렇게 말했다. "손님 님 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기사에게 돈을 냈고, 두 번째 남자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세 번째 남자는 기사의 뺨을 냐다 후려 갈았다. 세 명 모두 "차가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기사는 깜짝 놀라, "왜 절 때리시는 거죠?" 라고 물었다. 세 번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야 임마! 다음부터 운전 좀 살살 해. 너무 뺨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유급결정상담 133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공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전남대병원 220-6900
▷조선대병원 220-3114